

2023 GMI
세계선교대회
광고

D-16!

“여기,
섬기실 자리
있어요!”

공 개
모 집

선교대회 기간

9.18(MON)-21(THUR), 2023

주제

“중단할 수 없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자” (마24:14)

문의

은혜한인교회 선교부
GKCGMIUSA@GMAIL.COM

함께하는 기도

- GMI 선교사들이 다 모여
화합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 세계선교 마무리 비전을 심어주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총무팀

상황실, 개막식, KITCHEN & REFRESHMENT, DECO, 집회 순서 및 진행, 휴게실

총무/관리팀

식당, REFRESH, 등록, 선교부스, 먹거리 부스, 상황실, 의료선교, 셋업, PALAN-
CA(선물), 무료나눔 행사, MK프로그램(EM팀), 선교사 케어, 주차봉사, 가든 조명

등록/민박/호텔 팀

등록, 호텔, 민박, 안내데스크, 공항마중, 관광 가이드/도우미, WELCOME PACKAGE

KITCHEN & REFRESHMENT 팀

주방봉사, REFRESHMENT 간식, 먹거리 장터

사진/DECO 팀

참가자 개인 사진 촬영, 배경, 친교실, 분당

MEDIA/DESIGN 팀

역사자료 정리, 비디오, 사진 촬영, 웹사이트, 번역, 글편집, 뉴스레터

차량팀

공항 영접 짐 관리, 이동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케냐 조영순 선교사

계속해서 류마티스 증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이 진통제로만 버티고 있는
데 완전한 치료를 위해 기도
해주세요.

필리핀 박미경 선교사

갑상선 암과 여러 후유증에
도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기
검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과테말라 최재숙 선교사

류마티스 관절염에 별 차도
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통
을 이겨내고 완치될 수 있도
록 기도해주세요.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하였
고 통증도 없어졌으나 체중
이 심각히 줄었습니다. 능히
이겨내도록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오종성 선교사

허리 협착증으로 움직이는
게 어렵고 뇌전증으로 쓰러
질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
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
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새로운 항암치료제를 투여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길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
복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장원 선교사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러움
증이 성도님들의 기도로 차
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
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2023년 9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0개국 311명 (자체 파송 78%)

09.03.2023

GRACE 선교소식



2023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3년 은혜한인교회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1 세대를 통해 받은 세계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다음세대로 이어져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 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9월 선교일정

▷ 이스라엘 TD 22기 &
성지 답사 (8/29-9/7)

이번주에 이스라엘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키르기즈스탄

- 강형민 강숙진 선교사

살롬! 유업의 상을 함께 나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2023년 여름은 다른 어느해 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밤에도 영상 30도를 넘는 날씨가 지속되고 낮에는 40-45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3일 동안 12-17세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행사가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40명의 청소년들과 이들을 섬긴 40명의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뜨거운 눈물과 감격의 기쁨이 넘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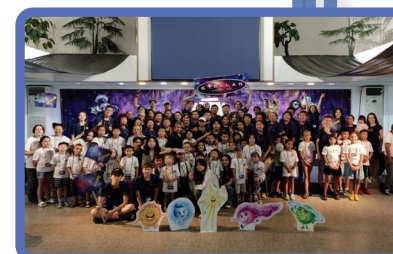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VBS도 열렸습니다. 이번 VBS에는 섬김이 60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휴가를 떠났지만 남은 45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림 신학교 성경 연구과정이 10월초 구약과정 개강을 앞두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주 열방대학의 SBS 강사님들께서 강의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우즈베크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의 작은 가정교회 리더 몇 사람과 그 지역을 돌아보고 교회개척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8월 7-10일까지는 이씩굴 호수에서 “GENERATION”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 팀은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과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성령 충만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11명의 팀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식사 뿐 아니라 복음을 받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케냐

-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

이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시작된 신학교 강의와 목회자 및 교사 세미나 그리고 영성 세미나를 통해 사명자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고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품고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축하할 소식은 그토록 기다리던 MWANGANI 은혜교회가 마침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망고나

무 밑에서 드렸던 첫 예배를 시작으로 흙으로, 양철판으로 그리고 이제 한 건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들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그룹에서 보내주신 워터필터가 도착하여 학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만은 세균이 없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물 때문에 배가 아플 일은 없게 되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 이병철 박미란 선교사

손을 놓고 복음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다가와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요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 듣지 못한 영혼들의 갈급하고 상한 심령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기를, 무엇보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전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곳을 통해 주님의 회복과 치

유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중학교 개학과 함께 인형극을 개최하였는데 실수투성이 무대를 통해 무슬림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VBS를 개최하여 저희 부부와 현지스텝들로 400여명의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이곳 히잡의 어린 용사들이 주님의 귀한 열매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페루

- 최갑순 정미희 선교사

저희 교회에서도 핫도그 700개를 만들어 성도들과 이 마을에 찾아가 교제하며 계속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시작하는 사역이 많은 열매가 맺히시길 기도합니다.

매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신학교, 정글교회 방문, 교회 건축공사 등 여러 사역들과 열악한 여건에서도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 그리고 함께 섬기고 있는 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10년 전부터 꿈을 통해 정글 인디언 복음화의 마음을 주신 일들이 너무나 기적적으로 이제 아마존에 도로가 완공되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목마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1분단상 120-9월호>

-김대규 장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교훈적 이야기이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현실에 젖어 세속화 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경종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다.

시대가 얼마나 흘러가던 간에 그때그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따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노아, 아브라함, 사사들, 참선지자들을 비롯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과 같이 타협을 모르고 우직하게 신앙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이끈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변치않는 믿음을 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다.

특히 우상숭배를 하던 아모리 족속출신으로 왕의 명도 거역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므로 예수님의 선조가 된 기생 라합, 사무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교한 스데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회개하고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한 사도 바울, 모두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한 사람들이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자 기독교사인 실재이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알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믿음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라는 채찍인 것이다. 지금도 주님은 이 역사 속에 들어갈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문득 고라 자손이 떠오른다. 고라는 레위지파 고핫 자손의 한 명이었다. 그는 추종자들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불과 함께 매몰되었다.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은 고라 자손이 그때 멸절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들들은 살아남았다. 공훈의 하나님은 최초로 반역죄를 지은 고라 자손을 저주치 않으시고 성소에서 성소를 관리하고, 빵 굽는 요리사로, 특히 예배시 찬송하는 자들 로 쓰셨다. 공훈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지만 고라 자손은 즐거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집 안의 반역죄라는 중압감에 눌려 의기소침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잘한 점은 하나님께 충성코자 그런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극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한 것이었다. 허물 많은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고라 자손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고라 자손처럼 주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 말씀이자 노래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교훈)이라고 하는 시편 42편일 것이다.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이다. 이 시편기자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비통함과 주위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에 눈물이 식사를 대신한 빵이 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울부짖음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혈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혈떡입니다.”로 시작된다.

바로 이 울부짖음이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영적인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 이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를 찾는 갈급함이다. 우리는 사슴처럼 언제나 목마르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다.

자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노소를 불문코 누구에게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목말라하는 것이 잠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생동의 애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무덤덤한가? 우리가 주를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인들과는 달리 언제나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마음이 늘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 은혜를, 은사를, 말씀을, 성령을, 주 예수님을, 주의 사랑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차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한 사모가 필요하다. 정도로 가기 위함이다. 마치 허기진 배를 움켜쥐는 것과 같은 절박한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고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삶이 필요한 것이다.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고 믿음은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 곧 마음은 신앙의 출발선이 된다. 이 출발선이 희미하다면 신앙은 내내 걸돌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고 역경의 길로 이어졌던 구약의 중심적 이야기. 이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